

## 본문에서 발견하기

-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말합니까?  
\_\_\_\_\_
- 그 때(11절)는 어느 시점을 가리킵니까?  
\_\_\_\_\_
- 이방인들을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_\_\_\_\_
- 본문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_\_\_\_\_
- 이방인들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_\_\_\_\_
- 이방인들에게 없는 것 2가지는 무엇입니까?  
\_\_\_\_\_
- ‘이제’와 ‘전에’는 각각 어떤 상태를 대조하고 있습니까?  
\_\_\_\_\_
- 이방인들이 가까워질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_\_\_\_\_
- 이방인들은 누구에게 가까워졌습니까?  
\_\_\_\_\_
-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_\_\_\_\_
- 본문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입니까?  
\_\_\_\_\_

## 적용하기

-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 나의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은 내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 그리스도와 가까워짐으로 변화된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 지난 주 말씀묵상 (에베소서 2:10)

- 오늘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우리 자신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이 드러나지 않을 때 교회는 힘을 잃고 전도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구원하셨고, 그 목적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삶입니다.
-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말하며, 우리의 구원과 변화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이 목적을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새로운 창조는 인간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창세 전부터, 즉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실 때부터 예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 그렇다면 선한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선한 일은 단순한 외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삶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 선한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보다 내면의 변화입니다. 열매보다 나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몇 가지 선한 행동이 아니라 선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 또한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착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이 되도록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은 공로가 아니라 은혜에 대한 열매입니다.
-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성품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계속 빛어 가실 때 우리는 점점 선한 사람이 됩니다.
-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 선한 일을 행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